

# 감성의 교집합에 관한 기록, '깁' 세대에 바친다

이휘현

## 몇 년 동안 품어 왔던 내 '주관적인' 기획

'서점에 가도 시큰둥하다.' 이게 요즘의 내 맘이다. 책동네에서 '체법 놀던' 때도 이젠 다 가버린 것일까? 헌책, 새책, 동네책방, 대형서점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하던 시절이 막연한 '옛 시절' 로만 떠오른다. 그 모든 것들을 작가 김훈의 글 모음집 제목 그 대로인 '밥벌이의 지겨움' 탓으로 돌리자니, 웬지 내 스스로가 비겁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일용직 글 노동자의 고단함을 토로하기 이전에, 서서히 내 정서 속을 파고드는 지적 게으름의 비겟덩어리를 애써 못 본 척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출판저널>로부터 '어떤 책을 기획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주제의 원고청탁이 들어왔다. '입고 먹고 자는' 일차적인 욕구해소 차원의 장기적인 인생 플랜으로 지난 몇 달 동안 '무뇌'의 상태에 처해 있던 나에게 이 청탁은 좀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그 당혹스러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운이 좋게도, 원고청탁을 받은 후 골똘히 생각에 잠긴 지 얼마 안 되어 내 뇌리를 강렬하게 스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예전부터 막연하게 홀로 생각해 왔던 나의 '주관적인, 너무나 주관적인' 기획이기에 이 지면과 과연 궁합이 잘 맞을지 걱정이다. 허나 일단 한번 저질러놓고 보자는 심정으로 이렇게 머릿속의 것들을 꺼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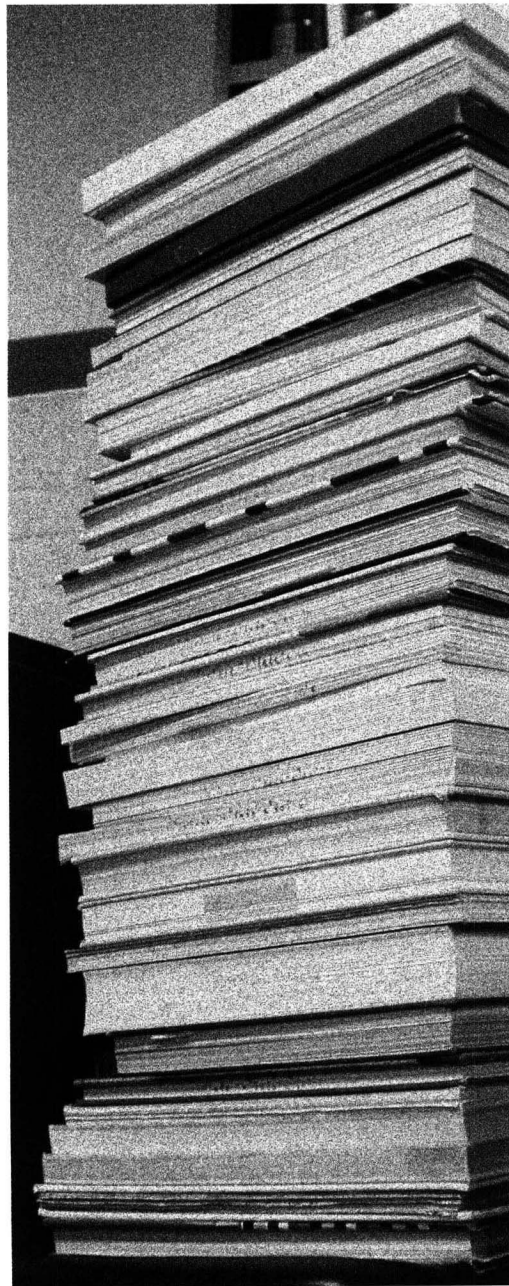
## '나잇값 못하는' 내 또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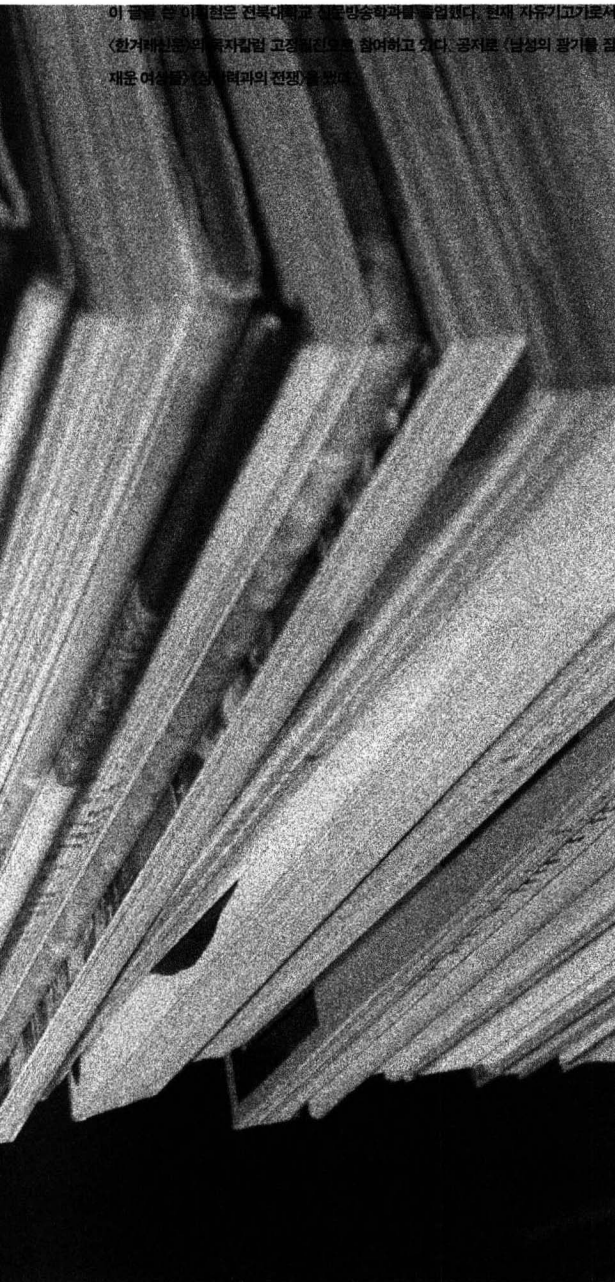
몇 년 전, 나는 여러 권의 책을 낸 바 있다. 하지만 공저의 형식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내 스스로의 기획으로 책을 낸 경험은 전무하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 나는 일용직 글폼팔이 생활의 와중에 틈틈이 이런저런 책들을 머릿속으로 혼자 구상해 보곤 했다. 그 중에 내 또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담으면 어떨까 하는 기획도 들어 있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스물다섯의 나이로 새롭게 대학에 입학한 후, 나는 내 또래들(출생년도로 따지자면 1973·1974년생들을 지칭한다)과 어울릴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내게는 내 또래들에 대한 '애착'이 점점 짙어져 갔다. 허나 그것은 가까이 할 수 없음에 따른 그리움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내 또래들을 조금은 거리가 있는 곳에서 객관적인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에 갖게 된 일종의 '공감' 과 '연민'의 흔적이었다. 그 느낌들이 풍성한 내용들로 채워져 한 권의 책으로 잘 갈무리된다면, 그 책은 내 또래들이 다른 세대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혹은 항변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 '깁' 세대에 바친다

만약 이 기획에 따라서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그 책의 제목은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시인 유희의 산문집 《이소룡 세대에 바친다》를 살짝 원용한 《'깁' 세대에 바친다》 정도로 말이다. 아울러 '나'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내 또래들의 이력은, 아래와 같이 대략적으로 기술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글은 한 이명천은 전북대학교 정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자유기고가로서 <한겨레신문>의 독자칼럼 고정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저본 <남성의 광기를 잡는 새운 여성들>이 <한겨레신문>의 전편을 썼다.

나는 1980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등교할 때마다 나는 학교 스피커를 통해 군가를 들었다. 뉴스에서는 가끔 멀쩡하게 생긴 대학생 형, 누나들이 빨갱이 사상에 몰들었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되는 장면이 나오고는 했다. 형, 누나들은 포승줄에 묶여서도 환히 웃고 있었다. 그때 나는 뉴스를 보면서 '저 형, 누나들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돌아버린 것이 분명해' 라고 생각했다. 중2 때, 나는 6월 항쟁을 목격했다. 민감한 사춘기였던 그 시절, 나의 가슴은 정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해의 여름, 임수경이라는 대학생 누나가 북한 땅을 방문한 소식이 연일 뉴스를 통해 전달되었다. 나는 여전히 '저 누나도 미쳤다' 고 생각했다. 같은 해 전교조 문제로 좋아했던 선생님들이 잘려나갔다. 그때, 막연하게나마 나와 내 친구들은 세상의 부조리를 떠올렸다. 1991년, 바깥 세상은 시끄러웠다. 대학생들의 시위가 격렬했고 그 와중에 한 대학생이 전경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했다는 것과 그 후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불을 댕겼다는 풍문이 전해져 왔다. 나와 내 친구들은 그러한 세상 밖 소식을 다 전해 듣고 있었지만, 애써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려 했다. 우리는 그때 고3 수험생이었으니까.

1992년에 대학에 들어갔다. 그해 봄,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했다. 80년대 학번 선배들은 가끔 술자리에서 "너희들이 저 엄혹했던 시절을 아느냐?"며 나와 내 동기들을 다그쳤다. 1994년 초에 군에 입대했다. 입대하고 얼마 안 있어 한반도에 전쟁의 불길이 휩쓸 것이라는 음산한 예측들이 난무했다. 그때 나는 내가 거의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2년 후 나는 몸 성히 제대했다. 그리고 또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 서서히 내 또래들이 복학을 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쯤 IMF 외환위기가 닥쳐왔다. 요즘 유행어처럼 떠돌고 있는 '청년 실업'의 비극적 주인공들 중에 내 또래들이 많은 것도 다 그 이유 때문이다. 어찌 보면 나도 그 무리 중 한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설상가상으로 나이도 서른을 넘고 나니, 이제 나와 내 또래들이 설망은 더욱 좁아졌다. 앞선 세대들처럼 정치적이지도, 그렇다고 후배 세대들처럼 지극히 개인주의적이지도 못했던 내 또래들. 내 친구 하나는 이런 어중간한 우리 또래의 처지를 일러 '낀 세대' 라는 자조 섞인 말을 뱉어낸 적이 있다.

#### 감성의 교집합에 관한 기록

이 장황한 예시는 내 삶의 이력을 보이고자 함이 아니다. 내 살아온 이력과, 그 이력의 틈새에 촌촌하게 새겨진 정서에는 내 또래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감성의 코드가 존재한다고 믿기에 이런 장황함을 무릅쓴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내 이야기는, 또한 내 또래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 기획은 시장의 논리로 바라보았을 때는 별로 달갑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획이 각각의 세대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들 각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성의 교집합' 이 형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민청학련 세대니 386세대니 하는 정치적 스타 세대들 사이에서 제대로 자신들이 선 자리를 발설할 수 없었던 여러 또래들에게, 이러한 기획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짚어볼 수 있는 하나의 '광장' 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선부른 낙관일지 모르나, 나는 그렇게 믿고 싶다. ✎